ISSN 2466-1279

언론사람

12
2020
VOL.246

04 특별기고
총체적 '언론불신 시대'의 개막

06 Newmedia of the World
트럼프 방송 중단과 따옴표 저널리즘

14 단어의 중력
인연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2020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에 관하여 <어바웃 타임>

CONTENTS

2020 DECEMBER

04 **특별기고**
총체적 '언론불신 시대'의 개막

06 **Newmedia of the World**
트럼프 방송 중단과 따옴표 저널리즘

08 **세상사는 法**
당위와 현실 사이

10 **돋보기**
취향(醉鄕)의 경지

12 **이달의 시**
낯설고 신선한 이역(異域),
우리들의 유년 시절

14 **단어의 중력**
인연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2020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에 관하여
<어바웃 타임>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등 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Yanikap <Beautiful snowy winter landscape>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길을 잃은
동지의 깊은 밤
숲은 움츠려
서로 기댄다.
동토의 땅 너머
조금씩 들려오는
시간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아라.
긴 밤의 속살을 베고서
동녘의 아침놀이
솟아오를 때까지.

글 손석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0년 미디어 지평

총체적 '언론불신 시대'의 개막

2020년대의 첫해인 올해 언론 지형도에 가장 큰 변화는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에 유튜브가 꼽힌 사실이다. 더구나 2020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 100년을 맞은 해였기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충격은 더 컸다. 기실 신문 창간 100년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평가를 불문하고 한 신문사가 100년 동안 존재했다는 역사적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가운데도 한국 사회에서 설립 100년을 맞은 경우는 드물기에 더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도 각각 창간 100돌 축사를 보내 의미를 부여했고, 두 신문사는 지면에 비중 있게 편집했다.

2020년 3월 5일, 창간 100돌을 먼저 맞은 조선일보는 '진실의 수호자'를 자부하며 창간 기념일을 앞뒤로 기획 기사들을 내보냈다. 100주년 사설 제목 그대로 "100년 전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며 '민족의 등불'을 자임했다. 과거 창간 기념 사설과 달리 나름대로 성찰도 담았다. "암흑기에 민족의 표현 기관으로서 일제 강압과 신문 발행 사이에서 고뇌했던 흔적"은 "오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100돌 기념 사설에서 "100년 전 청년의 꿈으로 다시 '젊은 100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설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일제 말 강제 폐간을 앞둔 시기, 조선총독부의 집요한 압박으로 저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면이 제작된 것은 100년 동아일보의 아픔"이라며 "정중히 사과"한 문장이다. 조선일보와 견주어 사과 표명이 한층 또렷했다.

하지만 현업 언론인 단체,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반응은 서늘했다. 조선일보가 100년을 맞은 바로 그날에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시민행동'은 사옥 앞에서 맹렬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신체제에서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나섰다가 해고된 기자들의 조직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는 창간 100돌을 맞은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의 억압 아래 민중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독재자에게 찬양과 아부를 일삼은 행적을 추궁하며 반성과 사죄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두 신문의 창간 100주년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을 2020년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가을에 발표된 언론사 신뢰도 조사에서 헤아릴 수 있다.

시사IN이 9월에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실시'에서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유튜브(13.0%)와 네이버(11.4%)였다. 더구나 두 매체의 신뢰도가 30대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나 '유튜브 시대'는 적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신뢰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 25.3%에 이르렀다. 유튜브와 네이버에 이은 신뢰도는 KBS(8.5%), JTBC(5.7%), MBC(5.0%), YTN(4.6%), TV조선(4.5%), 다음(4.1%), 조선일보(3.7%), SBS(2.5%) 순이다. 10위권 밖 순위는 한겨레, 채널A, TBS, 구글, 연합뉴스, MBN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 기준에서 ±3.1%p).

더 눈여겨볼 대목은 엄밀하게 말해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에 한국인이 답한 1위는 유튜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없다/모름/무응답' 비율이 17.8%로 유튜브 응답보다도 크게 앞섰다. 그만큼 신뢰하는 언론매체가 없다는 사실을 뜻한다.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달리 사실을 확인하는 내부 기제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가 '신뢰받는 매체' 1위인 착잡한 현실을 감안하면 2020년 한국인은 '총체적 언론 불신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100주년을 앞두고 '진실의 수호자'임을 부각한 조선일보에 불신이 높은 현상도 흥미롭다. 시사IN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두 가지'를 묻는 문항에 1위와 2위가 조선일보(22.8%)와 TV조선(8.5%)이었다. 물론 신문 매체로 국한하면 조금 결이 다른 대목도 있다. "우리나라 신문 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하나를 꼽아달라는 질의에서는 조선일보가 15.2% 응답을 받아 1위였고 한겨레가 13.1%로 2위였다. 다만, 이 설문에서도 유의할 대목은 신뢰하는 신문 매체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자의 비율이다. 2015년만 해도 무응답자가 25%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5%에 이르렀다. 신문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높아가고 있는 셈이다.

기실 신문의 불신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20년 내내 창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치게 몰아세워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 결과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이라는 역풍을 불러오기도 했다. 신문을 보면 현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무릇 권력 감시는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와 논평을 쏟아낼 때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뿐더러 정작 정당한 권력 감시조차 외면받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 불신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더 큰 문제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공영방송 또한 불신받는데 있다. 시사IN의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문항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 바로 다음은 KBS, MBC였다.

두 공영방송에는 전 정부에서 공정언론을 위해 싸웠던 방송인들이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친정부 편향'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두 공영방송이 '조국-추미애와 검찰' 사이에 벌어지는 공방에서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2020년 언론불신 시대는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한쪽에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레기'로 단정하는 지지 세력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매체의 애독자들이 있다. 두 흐름 모두 언론매체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가 가장 신뢰받는 매체에 오른 현상은 그 두 흐름에 속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총체적 언론불신 시대를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 2021년 새해에 우리가 갈라진 공론장을 살려내지 못하면 민주주의 성숙은 어림없는 일이다. '레거시 언론'으로 명명되고 있는 '정통 언론'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 없는 까닭이다. 신문과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성찰과 건투를 기대한다. 언론 관련 모든 단체들이 저널리즘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글 이성규(전 메디아티 미디어테크랩장)

트럼프 방송 중단과 따옴표 저널리즘

지난 7월,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은 '정보 라벨'(Information Label)이라는 기술적 확산 차단 조치를 플랫폼에 적용했다.[1]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올라오면 해당 포스트 바로 아래에 권위 있는 정보를 병렬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를 낳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이 첫 번째 타깃이 됐다. 페이스북은 포스트 아래에 "2020년 미국 대선 투표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usa.gov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를 부착했다.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보다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려던 이 같은 페이스북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버즈피드 뉴스[2]가 페이스북 내부 정보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허위정보의 재공유수는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미미한 정도의 변화였던 셈이다. 그를 지지해 온 다수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공신력 있는 정보가 바로 아래 제공되고 있음에도 트럼프의 허위 주장을 공유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나는 선거에서 승리했다"라고 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트 2건[3]은 11월 17일 기준 공유수만 도합 10만 회를 넘길 정도로 널리 퍼져나갔다. 페이스북의 예상과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간 사례다.

반면 트위터는 아예 가림막을 쳤다[4]. 허위정보로 판명되면 트윗 인용, 링크 클릭 등 일체의 관여 행위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대선 기간 중 무려 456건이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다수 포함됐다[5]. 결과적으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발휘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풍경도 있다. ABC, NBC, CBS 등 미국의 대형 방송사들은 거짓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브리핑을 생중계 도중 끊어버렸다[6].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작설을 연거푸 내뱉자 취해진 조치다. 이들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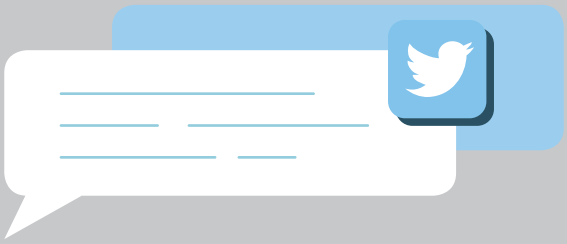
중단한 뒤 일성으로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분석평을 내놨다. 거짓이 자신들의 전파를 타고 공중에게 무한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설명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따옴표 저널리즘'의 위험성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 유명인의 발언을 여과 없이 따옴표로 묶어 여러 미디어 채널로 내보낼 경우, 여하한 조치에도 확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확인했다. 미국 방송사들의 생중계 중단 조치는 방영 뒤 이뤄지는 팩트체킹마저도 늦을 수 있다는 성찰적 경고였다. 어느 나라보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활성화된 미국 언론계이지만 사후 팩트체킹이 지닌 한계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여전히 따옴표 저널리즘에 관대하다. 2000년대 초 따옴표 저널리즘은 다소 경멸적 언어로 언론계를 휘감았지만, 지금은 불가피한 관행, 나아가 훈장처럼 인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포털 뉴스 안에서 주목받기 위한 선정성 경쟁에 따옴표 저널리즘만큼 간편하고 수월한 수단도 없다. 진짜인지 알 길 없는 익명 정치인의 부정적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 이젠 기자들의 윤리의식마저 무뎌져 왜 잘못된 행위인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준웅 등[7]은 정치인의 "부정적 언명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할 경우 언론은 단순한 전달자 또는 매개자를 넘어 정당 후보의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 폭로전을 돕는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보도 관행은 약간의 비약을 더하자면 민주주의를 위해하는 행위로 번져갈 수도 있다.

미국 방송사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저널리스트라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각인시켜줬다. 페이스북은 검증 없는 정치인의 직접 인용보도가 왜 위험한가 알려주고 있고, 트위터는 그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좀체 직접 인용부호를 제목으로 쓰지 않는 미국 언론사들, 반면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글만 올라오면 따옴표부터 동원하는 국내 언론사들. 만약 국내 언론인 스스로가 이러한 관행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플랫폼의 배열 알고리즘에 의해 존재마저 차단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익숙한 관행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확성기를 반복적으로 넘겨주는 순간, 비극적 예측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1) https://www.axios.com/facebook-label-posts-voting-candidates-officials-trump-ee94d526-4b59-4276-9287-e9b076e7a9cf.html
2)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raigsilverman/facebook-labels-trump-lies-do-not-stop-spread
3) https://www.facebook.com/DonaldTrump/posts/10165827624280725
4)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4809165
5) https://blog.twitter.com/en_us/topics/company/2020/2020-election-update.html
6) https://www.poynter.org/newsletters/2020/networks-pulled-away-from-president-trumps-shocking-press-conference/l
7) 참고문헌 : 이준웅, 양승목, 김규찬, 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3), p.64-90.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슬아라는 작가가 있다. 최근 내가 사랑하게 된 작가이다. 내가 그녀에게 빠진 이유 중의 하나는 그녀가 가진 자유로움 때문이다. 그녀를 좋아하는 만큼이나, (그녀가 '복희'라고 말하는) 그녀의 엄마도 정말 좋다. 당당한 그녀 옆에는 언제나 응원을 아끼지 않는 그녀의 엄마가 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이슬아 작가가 엄마에게 언젠가 누드모델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누드모델 일을 하러 갈 때 입으라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사주었다는 일화였다. 만약에 나중에 나의 딸이 누드모델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위법행위가 아닌 다음에야, 나의 딸의 선택을 복희님처럼 응원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희님은 나의 롤모델이다. 나는 아이들을 그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종종 생각한다. 또 아이들에게 직업이나 삶의 방식 등에 대한 나의 호불호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종종 다짐한다(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목을 의식하며 살았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내가 10대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만의 방에 틀어박혀 고민해 보고 싶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나의' 마음을 이리저리 살피며,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곳을 주체적으로 고르지 못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부디 기존의 줄에 수동적으로 합류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나는 논쟁적인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러한 논쟁거리 상황에 나를 집어넣고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수용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며, 스스로를 시험에 빠뜨리고는 한다. 가령 동성애에 대한 기사라든가, 얼마 전에 보도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나는 과연 자녀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응원'해줄 수 있는가, 라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으로선 응원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당위와 현실 사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명제를 내가 교과서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로 체화하고 있지는 못한 것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정말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호를 가졌든, 눈부신 다양성과 개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배척하지는 않겠지만 막상 내 가족 일이 되면 지지가 어렵겠다는 감정은 어쩐지 기회주의자 같아서 싫다.

그렇다면 대체 지지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을 가만히 따라가 보니, 아이들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었다. 여기에 나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이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 사회적인 잣대와 평판으로부터 떨어져서, 본인들의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칫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가운 냉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기성 잣대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사회적인 편견과 무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가령 내가 자발적으로 비혼모가 되기를 선택한 경우, 기존 사회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를 숨길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으며, 소수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과 관련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면서도, 사회적인 관계에서 입게 될 상처와 고립감이 너무나 걱정스러워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두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에서도, 내가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과 괴리감 비슷한 것들을 본다. 법원은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전제한다.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 이런 것이다. 대머리라는 욕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간 일이 있었다. 1심에서는 대머리는 그저 신체 특징을 묘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2심은 대머리는 객관적인 묘사를 넘어서 외모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말이고, 또 당사자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콤플렉스를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았다(수원지법 2011. 6. 23. 선고 2011노39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대머리는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는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사회적 평가 저하를 인정한 판례들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 시계를 한참 되돌려 1967년에 법원은 과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000판결). 또 2007년에는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면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또 2012년에는 혼전임신 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도 했다(창원지법 거창지원 2012. 8. 22. 선고 2011고단442 판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은 달라진다. 가령 1960년대에는 숨기고 싶었던 과부의 성생활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동성애나 혼전임신도 개인의 숱한 선택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될 수도 있다.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위 케이스들에서는 상황이나 단어의 객관성과 중립성보다도 이로 인해 유발되는 현실적인 피해를 살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대머리'와 '동성애'와 관련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을지언정 여기에 내포된 근원적인 상충 지점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대머리와 동성애는 당위적으로 개인의 특징이나 정체성 중 하나일 뿐이어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 부당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사회적인 통념은 당위성과 달리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드는 의문은 법원이 이 특징들을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의미의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명예권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숙한 인간에게는 타인의 말이 중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나약한 인간만이 타인의 평판에 스스로의 삶을 좌지우지시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견해는 인간을 실제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로 상정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늘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를 꿈꾸지만,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범인들은 늘 이보다 더 나약하고 미성숙해서 타인의 말이 칼이 되어 꽂히는 경험을 숱하게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명예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아, 우리가 덜 상처받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 김창환(서울대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연구소 연구원)

취향(醉鄕)의 경지

월하독작(月下獨酌) 제이수(第二首)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든다 제2수

당(唐) 이백(李白, 701-762)

天若不愛酒, 酒星不在天, 천약불애주, 주성부재천
하늘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주성이 하늘에 있지 않을 것이고,

地若不愛酒, 地應無酒泉. 지약불애주, 지응무주천
땅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주천은 당연히 땅에 없을 것이다.

天地旣愛酒, 愛酒不愧天. 천지기애주, 애주불괴천
하늘과 땅이 이미 술을 좋아하니
술을 좋아하는 것이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已聞淸比聖, 復道濁如賢, 이문청비성, 부도탁여현
전에 들으니, 청주를 성인에 비유하고
또 탁주를 현인과 같다고 했는데,

賢聖旣已飮, 何必求神仙. 현성기이음, 하필구신선
탁주와 청주를 이미 마셨으니
어찌 꼭 신선을 추구하겠는가.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 삼배통대도, 일두합자연
석 잔을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

但得酒中趣. 勿爲醒者傳. 단득주중취, 물위성자전
다만 술 속의 흥취를 얻을 뿐이니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하지 말 것이다.

주성(酒星) 술을 주관하는 별로, 일명 주기성(酒旗星)이라고도 한다.

주천(酒泉) 감숙성(甘肅省) 주천시(酒泉市) 동쪽에 있는 샘으로, 물에서 술맛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천(金泉)이라고도 한다.

현성(賢聖) 탁주와 청주를 말하며, 술을 두루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위(魏)나라 선우보(鮮于輔)가 조조(曹操)에게, "평소에 술꾼들이 청주를 성인이라 하고 탁주를 현인이라고 합니다.(平日醉客謂酒淸者爲聖人, 濁者爲賢人.)"라고 했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서막전(徐邈傳)≫]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낸 2020년이 끝나 가고 있다. 그 어려움도 계절의 순환처럼 변화와 종식의 때가 있을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하나둘씩 잡혀간다. 연말의 만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술과 관련된 일화는 예로부터 많이 전해지지만 중국 한시와 관련해서는 도연명(陶淵明)과 이백(李白)이 특히 유명하다.

도연명에게 술과 국화를 빼놓을 수 없듯이, 이백의 경우는 술과 달이다. 이번에 인용한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든다(月下獨酌)>는 술과 달 두 가지의 소재를 아우르는 시로, 달밤에 홀로 술을 마시며 자연과 합치되어 무아지경에 들었음을 설파하고 있다.

전체 14구로 된 오언고시인데, 앞의 6구에서는 천지를 끌어들여 술을 마시는 이유를 해학적으로 설명했다. 술꾼의 궤변이자 호탕함이라고 하겠다. 이어지는 4구에서 음주의 효과를 신선의 경지와 비교했다. '어찌 신선을 추구하겠는가'라는 말은 음주가 신선의 경지보다 낫다는 말이다.

마지막 4구에서 노장적 달관을 드러내고 있다. 세 잔의 술이 들어가면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대도를 깨닫게 된다고 했다. 술을 마시면 가식을 벗어 솔직해지고, 마음이 태평해져 포용력이 커지기 때문이리라. 장자가 이미 대도를 포용력으로 설명했듯이, 대도는 천지 만물을 감싸는 덕성이다.

하늘은 만물을 덮어줄 수 있을 뿐 실어줄 수 없고 땅은 실어줄 수 있을 뿐 덮어줄 수 없으나, 대도는 만물을 (덮고 실어) 감싸 안을 수 있다.(天能覆之而不能載之, 地能載之而不能覆之, 大道能包之.)≪장자·천하≫

더 나아가 한 말을 마시면 대취하여 너와 나,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선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으니, 도연명이 <술을 마시고(飮酒)> 제5수에서 드러낸, "이 가운데에 참된 뜻이 있으니 말로 밝히려다 이미 말을 잊었다.(此中有眞意, 欲辯已忘言.)"는 경지이다.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은 ≪노자·제25장≫의 압축이다. 노자는 우주 자연의 원리를 정의하여 '道'라 했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道法自然.)"라고 했다. 부연하여 소개하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은 자연을 본받는다.(人法自然.)"로 귀결된다. 자연은 '저절로 그러함'이니, 인위적 조작이 없는 '무위'의 다른 표현이다.

이 구절이 ≪노자(老子)·제25장≫의 내용을 시화한 것임을 알아야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三杯通大道"는 도를 깨닫는 과정이고, "一斗合自然"은 이미 도를 깨달아 그 본질인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이다.

이백은 술을 통해 초월을 얻었다. 그것은 부귀와 명예, 옳고 그름, 장수와 요절 등의 세속적 판단을 벗어난 상태이다. 나아가 너와 나의 경계까지 허물어진 물아일체의 경지이다.

10여 년 전에 필자는 이 시구와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몇 학기에 걸쳐서 학부생들과 함께, 전통주를 빚는 전국의 양조장들을 찾아 견학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충북 진천의 덕산양조장을 방문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정면의 벽에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이 판각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양조 시설을 견학하고 여러 종류의 술을 시음했다. 막걸리도 담백하고 좋았지만, 원액인 순주(醇酒)의 맛에 반해 대도와 통한다는 3배를 넘겼다. 돌아오는 길에 순주 한 상자를 주문했고, 배달 받아 음미하면서 한동안 행복했던 기억이 새로워진다. 이러한 일상이 내년에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글 정효구(충북대 교수, 문학평론가)

낯설고 신선한 이역(異域), 우리들의 유년 시절

티눈과 난로와

김춘수

너무 어려서
너무 어리석었던 그 시절
걷다 걷다
발가락의 티눈 보고 울어버린
그 시절
난롯불에 손 데고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 듣던 그 시절
마당가의 금잔화
눈 한 번 맞춰보지 못하고
여황산에 놀이 지던
그 시절
너무 낯설어
슬픔이 멧닭으로 보이던 그 시절

– <거울 속의 천사> (민음사, 2001)에서

우리들에게 <꽃>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대여(大餘) 김춘수(1922-2004) 시인은 노년까지도 그의 시 속에서 지성과 현대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시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만년 '현대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감정과 관념의 넘침을 경계하였으며, 계몽과 교훈의 어색함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달의 시 <티눈과 난로와>는 김춘수 시인이 80세가 넘은 시기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그는 노경(老境)의 한쪽 극단에서 지극히 먼 시간적 거리 속의 다른 한쪽 극단인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관습적인 유년의 풍경이 아니라 '낯설고 신선한 이역'으로서의 유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의 '이역'을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와 같은 '이역'을 그의 시 세계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천사'라는 상징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어서 신선한 것,' '낯설지만 신선한 이역'을 김춘수 시인은 '천사'라는 말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라는 말을 왜 여기서 음미해야 할까요?

그것은 김춘수 시인에게 시를 쓰는 일이란 이 '천사'를 찾고, 만나고, 그려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의 시적 여정 속에 세 가지 결정적인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하나는 유년 시절 호주 선교사네 집이었고, 그 둘은 청년 시절 릴케의 작품 속에서 만난 특별한 존재로서의 천사였으며, 그 셋은 노년 시절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가온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낯설고 신선한 이역'으로서의 천사! 이런 천사를 찾아다니며 형상화한 김춘수의 작품들은 어느 시편을 읽어도 '천사의 감각'을 불현듯 일깨웁니다. 낯설어지면서 신선해지는 묘한 느낌 속에서 시적 충격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티눈과 난로와>에서 김춘수 시인은 너무나 어려서 어리석었던 유년 시절, 작은 보폭으로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길 위에서 드디어 발의 티눈을 보고 울어버렸던 유년 시절, 세상 사는 방법에 서툴러서 그만 난롯불에 손을 데곤 했던 유년 시절, 난로 위에서 주전자 속 물 끓는 소리를 노래처럼 듣곤 했던 어린 시절, 마당가의 금잔화도 볼 줄 모른 채 여황산(통영의 주산)에 노을이 질 때까지 무작정 놀던 유년 시절, 세상사가 모두 처음인 것만 같아 슬픔조차도 멧닭(산닭)처럼 보이던 유년 시절을 그려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김춘수 시인의 유년 풍경에 진한 공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김춘수 시인과 같은 유년 시절을 그대로 경험하고 통과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의 유년 시절을 미화하거나 그 시절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비켜서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깃들기 쉬운 관습적 감성이나 기억을 넘어서서 유년 시절을 '있는 그대로' 그려 보입니다. 인간의 생애사 속에서 기성 사회에 진입하느라 '입사식'을 호되게 치러야 하는 유년 시절, 모든 입사식이 그러하듯이 실수와 혼란으로 좌충우돌하며 당황하는 유년 시절, 서툴지만 규율에 길들지 않은 천진(天眞)의 순수와 자유가 살아 있는 유년 시절, 그런 유년 시절의 사실적 풍경이 이 작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슴 한쪽이 찡해지는 가운데 애정이 듬뿍 담긴 사랑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나약한 하나의 생명체로 도착하여 기성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애쓰는 인류의 어린 시절이 안쓰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담긴 생명들의 순수와 자유와 생명력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여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들을 낳고 돌보며 인류사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장엄한, 그러나 때로 불가해한 길 위에서 우리는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글·사진 황경신(작가)

인연

맹렬하게 타오르던 해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바다에서 돌아온 부부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한 병의 보드카를 따서 목을 축인 후, 노을을 바라보며 저녁식사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섬, 티오만 아일랜드에 머물렀던 열흘 동안, 그 부부는 너의 이웃이었다. 마주칠 때마다 눈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옆 테이블에 앉았다. 시시콜콜 너를 참견하거나, 구구절절 자신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겠다는 결심이 설 때까지 사흘이 걸렸다.

-안녕? 난 한국에서 온 S라고 해.

다가오는 너를 보고 그들은 활짝 웃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왔어. 나는 안나, 내 남편은 드미트리야.

-반가워. 너희들이 멋져 보여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들의 허락을 받아 너는 카메라에 부부를 담았다.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메일 주소도 받았다. 그러고 나니 그냥 자리를 뜨는 게 서먹해서 가벼운 질문을 던졌다.

-오늘은 뭐 할거야? 스노클링?

너희가 머물던 작은 섬, 오래되고 낡은 리조트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어슬렁거리고,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하고, 해먹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이 오면 노을을 감상하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네가 원했던 것도 그것이 다였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니 슬슬 지겨워지던 참이었다.

-배를 타고 좀 멀리 나가서 스노클링을 할 생

말레이시아, 티오만 아일랜드에서 만난 안나와 드미트리 부부

각이야. 너도 같이 갈래?
너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그래도 돼?
–응. 배는 예약했으니까 너는 장비만 챙겨오면 돼.

러시아로 돌아간 안나가 메일로 보내준 사진

배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우뚝 멈춰 섰다. 네가 구명조끼를 입고 오리발을 끼고 마스크와 스노클을 착용하는 사이, 안나와 드미트리는 물안경과 오리발만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없고, 마스크와 스노클은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그때 너의 수영실력은 빠져 죽지 않을 정도였지만,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서웠다. 하물며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바다라니. 구명조끼가 있으니 물에 둥둥 뜰 수는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것이 틀림없는 조끼 하나에 생명을 맡겨도 괜찮은 걸까? 배를 몰던 이가 웃으며 망설이는 너의 등을 떠밀었다. 그날 너는 우주 같은 바닷속에서, 먼지 같은 너를 겪었다. 경이로운 허무, 차고 냉정한 바다의 다정함이 너를 감싸 안았다. 안나와 드미트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 그들은 수 미터 아래로 잠수하여 들어가 상어를 만났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러시아에서 온 부부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바다를 바라보며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돌아가는 거야?
네 질문에, 그들은 무인도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해주었다.
–보드카는 한 병 챙겨가지만, 맥주는 무거워서 마시고 가려고.
무얼 하는 사람들일까. 몇 살쯤 되었을까. 은퇴 후 떠난 여행일까. 휴가를 온 것일까. 맨 몸으로 잠수하고, 무인도에서 밤을 보내는 부부가 러시아에서는 흔한 걸까. 스포츠강사, 경찰, 아니면 영화에서 보았던 스파이? 너는 네 상상의 날개를 꺾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인할 인(因)은 에운담 위(口)와 큰 대(大)가 만나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이 팔을 벌려 에워싼 영토를 넓히려는 데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인연 연(緣)은 가는 실 사(糸)와 판단할 단(彖)이 결합한 것으로,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줄을 의미한다. '인연'이란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맺게 되는 관계, 볼 수 없으나 이어져 있는 실이다.

이으려 애써도 잇지 못하는 인연이 있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굳게 이어졌나 했는데 툭, 끊어진 인연이 있고, 함께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천수를 누리는 인연도 있을 것이다. 너와 그 부부의 인연은 눈을 감았다 뜨기도 전에 먼지처럼 티끌처럼 흩어지는 것이었다. 헤어짐도 만남처럼 담백했다. 무인도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이 마지막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더니, 금세 답이 왔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어. 놀러와.
눈으로 뒤덮인 한겨울 러시아의 산 속 오두막집과 네가 사는 도시의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너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짧은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런 인연도 인연이다. 소중하게 기억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정성을 다해 떠나보내야 한다. 쉽게 끊어지는 연약한 실,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짧은 실들로 인생은 촘촘하게 짜이는 것이니까.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2020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에 관하여

<어바웃 타임>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던 한 해도 저물어 간다. 하루하루는 버티기 괴로웠는데 1년은 금방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올해보다는 알게 모르게 맷집이 생겼으리라. 이번 달에는 송년회 대신 백신과 치료제 소식에 귀 기울이면서 조용히 가는 해를 정리하고 오는 해를 계획하는 건 어떨까. 혼자 갖는 사색의 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순기능 중 하나일 것이다.

올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화려한 풍경이 담긴 영화보다 지친 우리를 보듬어줄 작품이 더 어울릴 것 같다. 2013년 12월에 개봉한 '어바웃 타임'(감독 리차드 커티스)은 많은 이들이 인생 영화로 꼽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에서도 종종 발견될 만큼 사랑받는 작품이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아니지만 '팀'(도널 글리슨)과 '메리'(레이첼 맥아담스)의 로맨스가 훈훈한 데다 영화 내내 담백하게 깔려 있는 인생철학이 잔잔한 여운을 남기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초반, 팀의 내레이션으로 소개되는 그의 가족들은 다소 엉뚱하다. 그러나 이들은 행복해 보인다. 직설 화법을 날리는 까칠한 엄마, 지나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동생, 다른 사람에게 도통 관심이 없는 삼촌까지 팀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유년시절에 이들과 함께 반복했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소중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팀이 스물한 살이 되던 해, 평범하게만 보이던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방법조차 어찌나

간단한지 팀은 한순간 실소를 금치 못하지만, 곧 아버지의 말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경악한다. 이제, 팀이 그 능력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만이 남아 있다.

20대 초반의 혈기 왕성한 남성으로서 팀은 먼저, 그토록 바라던 연인을 얻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 극작가인 '해리'(톰 홀랜더)를 도와주느라 이상형이었던 메리와 만날 기회를 잃게 되자 그는 메리가 파티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던 날로 돌아가 조금 일찍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연인이 된다. 타임슬립을 활용한 팀의 유머러스하고 로맨틱한 연애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후, 팀과 메리의 사랑, 결혼, 출산은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한편, 팀은 타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해리가 극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해주었던 것처럼 동생 '킷캣'(리디아 윌슨)을 위해서도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킷캣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생 스스로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이 영화의 첫 번째 교훈은 초능력이 있다 해도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킷캣은 이미 자신을 '집 안에 하나쯤 있는 골칫거리,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절망하고 있다. 팀과 메리는 킷캣이 스스로 달라질 때까지 옆에 있어 주고, 충분히 기다려준다. 마침내 킷캣은 더 이상 나쁜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닐 것을 결심한다. 자신감을 되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팀이 타인에게 발휘한 또 하나의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아이들 아버지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갈 때쯤, 팀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아버지는 눈물을 쏟는 대신 담담하게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인생의 지혜를 꺼내놓는다. 그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과거로 가서 다시 한번 그 하루를 반복해 보라고, 그러면 정신없이 지나느라 포착하지 못했던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것이 비단 영화 속 주인공만 경험할 수 있는 감흥은 아니라는 것이다. 옷장에 들어가 주먹을 꼭 쥐는 대신 일기를 쓰기 전 그날 하루를 머릿속에 되감아 보듯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화가 났던 일들을 곱아보면,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 분위기와 상황을 찬찬히 정리해 보면, 우리도 작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몇 시간 사이에 크게 보였던 일들이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새삼 다행이다 싶은 일, 고마운 일들이 불쑥 떠오르는 신기한 일들 말이다.

그래서 '어바웃 타임'은 팀이 바꾸고자 하는 과거의 시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시간의 신비한 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일상이 마비되고, 모두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2020년에도 과연 감사할 일이 있을까. 지금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뿐이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시기를 꿋꿋이 버텨냈던 자신을 대견해할지 모른다. 아마도 그때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도 더 커져있을 것이다. 팀은 나이가 들수록 타임슬립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다. 실수와 오점을 바꾸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팀이 성장했던 것처럼 지울 수 없다면, 바꿀 수 없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2020년이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위원회 뉴스

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1월 13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옥 교수(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의 사회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의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서강대 유현재 교수의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SBS 권태훈 기자,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위원회 최명진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촬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주요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 등재학술지 선정

위원회(이석형 위원장)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이 11월 6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등재지 심사에서 언론법 분야 전문학술지로 인정받으며 언론과 인격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향후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

지역사무소 이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언론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1월 23일 제주사무소를 이전했다.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다모앙빌딩 3층

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토론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12월 17일 위원회 6층 강의실에서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언론전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토론회 현장을 녹화해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위원 동정

최승재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발표회 진행

최승재 위원(서울제8중재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11월 18일 대한변협이 개최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최 위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단순한 법조계 전직 판·검사 문제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법조 유사직역 전반에 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직역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민정 위원, 제22대 한국PR학회장 취임

성민정 위원(대전중재부,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11월 6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PR학회 2020년 후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한국PR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성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경희 위원, 강릉언론학회 <2020 가을철 학술대회> 개최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 강릉언론학회 회장,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11월 18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세미나실에서 'ICT 시대의 지역언론과 인공지능콘텐츠'를 주제로 <2020 가을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미디어와 인격권>

290개의 키워드로 확인해보세요

창간호(2015.4.17)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주제이기도 하지요.

지난 2015년 창간된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창간 5년만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했습니다. 발행 역사는 짧지만 학술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언론법제 분야의 특수성이 인정되었고, 기획논문을 통한 시의성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워드클라우드(http://wordcloud.kr/218046)

올해 상반기까지 발간된 <미디어와 인격권>에 수록된 논문 53편의 290개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 '인격권', '명예훼손', '디지털', '데이터' 등의 키워드가 가장 핫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끌리시나요?

궁금하시면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논문을 참고해주세요!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기획논문]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

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면제를 중심으로 –
최창수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유승현

GDPR과 CCPA상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수윤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의 쟁점과 실천적 대안
전창영 · 오세욱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이근옥

명예훼손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이 피해자의 법적대응 의향 및 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제삼자 효과를 중심으로 –
이예찬 · 민 영

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와 내적 자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정연우

제6권
제1호
2020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397-3042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rthxiu